소통으로 신뢰받는 의회 함께 만드는 행정수도 세종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보도자료

제공일자	2026. 11. 26.(목)	**사진 · 영상**	사진(○), 영상(X)
보도일자	2026년 11월 26일(목)부터		
제 공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김동호**	044-300-7180

[2027 본예산안 심사] 세종시의회 김동호 의원, 자율주행버스 상용화 위한 실증계획 재검토 주문

- 시범운행지구 실증 지원 사업비 감액… 버스 1대로 상용화 준비 충분한지 점검 당부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동호 의원(집현동,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오전 제5차 경제문화위원회 회의에서 경제산업국 소관 2027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며, 자율주행버스 1대의 실증 운행만으로 상용화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지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세종시는 올해로 사업기간이 끝나는 '충청권 자율주행 모빌리티 상용화 지구 조성' 사업에 이어 내년에는 후속사업을 추진한다.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간에 레벨4 자율주행버스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이 목표다. 시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 차량 개조와 실증 규모를 줄이고, 내년도 예산안에 자율주행버스 1대의 실증 운영비로 2억 3,100만원을 반영했다.

김 의원은 레벨4 자율주행버스 상용화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실증 규모를 줄이는 것이 적절한지 물었다. 특히 세종시가 BRT 구간에 자율주행버스를 도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만큼, 버스 1대를 운행해 얻은 결과만으로 실제

노선에서 시민을 태우고 운행할 준비가 충분한지 판단할 수 있겠느냐고 짚었다. 그러면서 상용화에 필요한 실증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지 따져보고, 그에 맞게 내년도 운행 계획을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자율주행버스 상용화의 혜택은 시민들이 평소 오가는 길에서 버스를 직접 이용할 수 있을 때 체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도 실증 운행 결과를 향후 BRT 노선 운영에 어떻게 반영할지까지 염두에 두고 후속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